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감사하기 그리고 풀어놓기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항).”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열정을 지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 일, 활동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두가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대화, 경청 그리고 성령의 활동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변화(transformation)라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육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transformation)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녀회도 이번 총회를 통해서 변화를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여러 교육과 줌(zoom)을 통해 지속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변화하자고 계획 세워도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은 결심하고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서 변화를 서서히 이뤄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풀어놓기 작업과 감사하기 작업입니다. 나를 묶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먼저 알아내고 너무 오래 붙잡지 않도록 하나씩 풀어 놓도록 합니다. 풀어놓기 작업을 시작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상황과 상처, 습관, 권리, 문화, 전통, 기억, 승리, 실패, 수치심, 갈등, 감정, 이미지 등은 잊힌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시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멈추어진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거리를 두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좋습니다. 감사함으로써 풀어놓기 작업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저술가 마메르토 메나파스 사제는 그의 수도원 방 앞 감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떨어지는 ‘톡톡’ 소리를 듣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감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모든 열매가 다 익어서 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나무는 감이 익기 전에 많은 열매를 떨어뜨린다. 감나무가 그 열매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열매들이 잘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떨어진 열매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나무가 스스로 더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얻기 위해 많은 열매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감나무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이제까지에 삶의 방식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풀어놓기와 감사하기를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는 주로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버트 헬링거)

해밀 가족 야유회



4월 19일(수)~20일(목) 강원도 속초로 해밀 가족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해밀 가족들과 직원들이 동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푸른 하늘과 짙은 초록 앞들로 인해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1일(월) 대전교구 해미국제성지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해미 성지는 1백 년의 박해 동안 수천 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웅덩이와 구덩이로 내몰린 채 생매장당하며, 참혹한 핍박의 흔적을 지닌 곳입니다. '예수 마리아'를 부르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여수머리'라고 들었던 주민들의 입을 통해 '여숫골'이라는 지명으로 전해져 왔고, 2020년 11월 29일 대립 제1주일에 '해미순교성지'가 교황청이 승인한 '해미국제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진행된 야외미사는 103명의 후원회원과 봉사자, 교정사목 관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사랑한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교육



5월 12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교육이 가톨릭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비롯한 15개의 위원회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법정 의무교육을 받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인식개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را 전합니다.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김혜정 안젤라_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2017년 교리신학원을 졸업하고 본당 외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교정사목 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형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로 나누어져 한 달에 두 번씩 격주로 미사에 참례하고 저희 봉사자들은 매주 참례하여 말은 소임을 성실히 하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수행자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모가 되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지내고 있으려나 어렵פות이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살기도를 올려봅니다.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성실히 함께 참여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들 덕분에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재차 되새기며, 성모님과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의 여사 봉사자로 지내고 나니 남사 봉사에 보고 싶어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봉사 활동이 멈추었습니다. 기나긴 3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코로나19의 길고 긴 황량함도 서서히 고개를 숙일 무렵, 저는 올해 2월 9일 개학일에 합류하여 남사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네 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의 참석으로 은혜로운 세례식을 빛내주었습니다. 저희 또한 커다란 응원을 보냅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형제님들의 노력이 보탬이 되고, 담당 교리 봉사자의 수고가 세례자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처럼 담당 신부님과 대표봉사자를 중심으로 은혜로운 미사가 거행됨에 형제들과 저희 봉사자들 모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슴에 새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는 외침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 안에서 마음이 한층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감사와 찬미를 영원히 받으소서.

부족한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저희는 미약하오니, 당신께 도움을 청하나이다.

당신의 착한 목자로 돌아서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 교육

김일호 미카엘_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기쁨과희망은행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회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출소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무담보 대출 은행입니다. 무담보 대출인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신용불량 인데다가 전과자에게 그들의 신용을 믿고 대출해주는 은행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사회적 약자인 출소자에게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내적인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외적인 기술 습득을 제공하여 창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소자본 창업 대출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은행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1회~2회 진행하던 출소자를 위한 창업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창업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창업자금 접수와 심사는 수시로 변경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쁨과희망은행이 주관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에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 창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정 공무원과 창업 교육 강사, 수형자에게 기쁨과희망은행 설립 취지, 목적과 사업에 대한 안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창업 교육으로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과 부실 대출자를 예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교정시설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의 업무협조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국군교도소도 창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성 수형자의 창업 교육 확대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과 창업 교육을 위해 선뜻 나서서 강의해주시는 강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창업 교육을 수료한 수행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출소일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서 진행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출소 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만드시길 바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시며 기쁘게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출소예정자 소자본 창업 교육 ●



담장 안 이야기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

+차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

지난번에 보내주신 서신 감사히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해요~ 꼭 집어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꺼라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령은 이곳에 온 직후 공동도서에서 찾아서

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들은 '생명의 길'도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매일 미사도 달마다 가져와서 보고

있기는 한데 기도문이 다 쓰여있지 않아서요. ^^

아직 신성한 묵주는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관없이 성경이나 마시책은 자주 보여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구요)

여전에 필사한 잠언 외 3편 (생각이 안나요~) 아람

이번에 필사한 시편, 요하복음, 유다서간, 요나서, 토빗기...

이렇게 하면 양이 꽤 되는데 가끔 모아둔 걸 보면

정말 백뚱하고 해요 ~^^ 토빗기 마무리하면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이팅 해주세요 ~^^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께 편지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에 통화로 모진 말들을 해서 맘을

아프게 했었거든요.

이번 고해성사 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고백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했는데 그 이유를 계속 맘이 좋지

않고 생각이 났는데 오늘에서야 편지를 썼습니다.

신부님께서 추천해주신 트빗가를 팔사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매번 이렇게 가슴이 짙히 느끼고 반성하다가도
잊고 똑같이 잘못하고 또 후회하고 하네요..
아전에 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불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마음 깊이 듣고 마음을 써도
충족하곤 후에 냉담자(이 곳에서 알게된 용어인데
아를 때 쓰는 표현이 맞나요? ^^)가 되어버려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더군요. 저 여기에도 자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나가면 그것들 잊어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편지 한 통 드리고 싶어서 서신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님께 쓰고 싶는데 주소를 몰라서요 ^^
(냉담이에요 ~ 하하)
그럼 신부님~ 항상 건강하시고 또 편지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 ^^

2023. 5. 8

 드림

2023년 7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6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6월 7일(수)~13일(화)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여주교도소(여사)
- 6월 12일(월)~1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의정부교도소(남사)
- 6월 15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6월 20일(화)~22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서울남부구치소(남사)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4/13~5/18)

2023년 4월~5월에는 최민지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양승표 제노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